

출장복명서

공공기관 민영화 및 투자평가제도 조사

- 일본 내각부 및 국토교통성 외 방문 -

2012. 12.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제도와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심층면담
 - 공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기관(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 추진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와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해 질의·논의하고자 함.
- 민관경쟁입찰 사례 조사
 - ‘시설관리(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운용업무)’에 있어 민관경쟁입찰 실시 사업을 통해 낙찰된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비를 삭감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비즈니스 라이브러리를 방문하고자 함.
- 공공서비스개혁 모델과 상이한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의 추진배경논의
 - 유료고속도로의 매각 또는 시장화와는 다른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의 배경, 시장화와의 차이점,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를 방문하고자 함.

□ 출장지 및 출장기간

- 출장지: 일본 도쿄
- 출장기간: 2012년 12월 12일(수) ~ 2012년 12월 14일(금)

□ 출장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정권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 (동반출장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

□ 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자	시간	방문기관 및 면담자
12/12(수)	15:00~16:30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즈니스정보서비스부 비즈니스라이브러리 Nagasima Asako 과장
12/13(목)	10:00~11:30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사무국 Tachi Itsushi 실장 겸 사무국장(심의관) 및 Onishi Yusuke 담당자 외 1인
	14:00~15:00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Kutsukake Toshio 기획전문관 및 Nagao Shinichiro 과장보좌 외 1인
	15:00~16:00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관민연계정책과 Nakahara Jun 과장 및 Sasaki Shunichi 정책기획관 외 2인
	16:00~16:30	국토교통성 官廳營繕部 담당 Machida Hirohiko 장관관방 심의관

□ 출장일정

- 일시: 2012년 12월 12일(수) ~ 2012년 12월 14일(금)
- 세부일정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12/12(수)	09:00~13:00	출국 (김포 → 도쿄(하네다))	
	13:00~15:00	중식 및 이동	
	15:00~16:30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방문	
	16:30~	이동 및 석식	
12/13(목)	~10:00	조식 및 이동	
	10:00~11:30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사무국 방문	
	11:30~14:00	중식 및 이동	
	14:00~16:30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종합정책국 관민연계정책과 및 官廳營繕部 방문	
	16:30~	이동 및 석식	
12/14(금)	09:00~15:00	귀국 (도쿄(하네다) → 김포)	

II. 회의 내용

1.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방문

가. 방문개요

- 회의 주제 : 민관경쟁입찰 사례 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2일(수) 15:00~16:30,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즈니스라이브러리
-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총 6명
 - 방문자: 이정권 팀장, 나정현 전문연구원(이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이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 최세경 통역담당(와세다대학대학원)
 - 면담자: Nagasima Asako 과장(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즈니스정보서비스부 비즈니스라이브러리)

나.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민관경쟁입찰

□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민관경쟁입찰 경위 및 배경

- JETRO는 한국에서의 KOTRA에 해당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 JETRO 직원은 정부기관의 공무원 보장과는 다른 JETRO만의 법적 근거로 보장됨.
-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하도록 하는 “행정개혁”에 따라 민관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됨.
- 그러나 비즈니스 라이브러리가 민관경쟁입찰에 참여할 당시에는 ‘시설관리(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운용업무)’에 있어서의 민관경쟁입찰 사업 사례가 많지 않았음.
- JETRO가 반정부·반민간인 독립행정법인이기는 하나, JETRO 운영은 세금으로 이루짐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비즈니스 라이브러리를 민관경쟁입찰 사업으로 선정함.
 - 민관경쟁입찰 사업으로 선정시, 경제산업성과 JETRO 경영진의 판단으로

선정함.

- 일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독립행정법인도 정부기관으로 여겨짐에 따라, 「공공서비스개혁법」에 의거하여 정부기관이 아니어도 민관경쟁입찰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민관경쟁입찰의 사례 중 내각부 청사관리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관리’ 사례의 연장선에서 비즈니스 라이브러리가 선정됨.

〈표 1〉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민관경쟁입찰 사업개요

사 항	내 용
사업내용	JETRO 비즈니스 라이브러리(도쿄, 오사카)의 자료정리, 자료관리, 열람·이용자 서비스 관련 업무 등
실시기간	2010년 4월 ~ 2012년 3월 (2년간)
수탁사업자	Maruzen(丸善)주식회사
실시에 있어 확보할 사항	- 자료정리업무 - 자료관리업무 - 열람·이용자 서비스 관련 업무 등

○ 민관경쟁입찰의 프로세스

- 우선, ‘官’인 JETRO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에서 입찰에 필요한 示方書を 작성한 후, 경쟁입찰의 주관자인 JETRO 총무부에 넘기며, 이후 비즈니스 라이브러리(官)도 입찰제안자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JETRO가 관리하는 이유는, 경쟁입찰시 어떠한 업무를 입찰 범위로 정할지가 중요하였으며, 경영 및 관리 등의 주된 업무는 JETRO가 맡도록 하였기 때문임.

다.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주요 이슈

□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고용 문제

- 민관경쟁입찰 시행 전부터 라이브러리 업무 중 비정규직(파견직)을 고용했었으며,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민간업체도 신규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과 협상하여 계속해서 고용하기도 함.
- 민관경쟁입찰의 목적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으로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저하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경우, 경쟁입찰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되어 성공한 사례라고 여겨짐.

- 물론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에 고용되면서 고용환경 저하나 임금삭감이 야기될 수는 있음.

□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

-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의 측정척도로 이용자 만족도를 들 수 있는데, 전자도서관 등의 보급으로 도서관의 이용자가 감소하면 만족도 향상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지?
-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경우, 국제비즈니스 전문 도서관으로써 전문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에 따라 오히려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민관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향상된 서비스
- 민간업체는 다른 도서관의 시설관리 knowhow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에 적용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함.

〈표 2〉 도서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

(단위: %)			
항 목	목표	실시결과(2010년도)	
		도쿄	오사카
자료는 이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80	96.1	96.4
복사 담당자의 대응, 복사 상태		98.0	97.9
접수 담당자의 대응		98.8	98.9
도서관 내의 쾌적함		97.4	99.0
응답 회수율	60	66.8	89.6

주: 1) [도쿄] 설문기간: 2011년 10월 1일~7일, 배부수: 751부, 회수부수: 502부

2) [오사카] 설문기간: 2011년 10월 1일~22일, 배부수: 464부, 회수부수: 416부

〈표 3〉 경쟁입찰 전후 경비 비교

(단위: 천엔)		
사 항	금액	비고
종전 경비	128,624	2008년도 실적치의 2년분
계약액	121,968	2010년도 및 2011년도
삭감액	6,656	3,328천엔(1년분)

□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어려움

- 민관경쟁입찰 참여에 있어 JETRO 본연의 업무를 JETRO가 유지하고 운영업무만 분리하여 경쟁입찰 대상이 될지 우려하였으나, 본연의 업무와 운영업무로 분리하여 운영업무만을 경쟁입찰 범위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었음.

☐ 민관경쟁입찰의 평가절차

- 민관경쟁입찰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부와 함께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시기: 가령 사업기간 3년인 경우, 2년차에 평가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완료 후, '민관경쟁입찰'로 수행할지, '민민경쟁입찰'로 수행할지 등을 결정함.
-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의 경우, 첫 번째 민관경쟁입찰에서는 민간업체가 낙찰되어 3년간 운영업무를 맡았으며, 민간에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두 번째는 '민간경쟁입찰'로 수행함.
- 참고로, "JETRO 아시아 경제 연구소 도서관" 운영업무의 경우, 첫 번째 민관경쟁입찰에서는 官이 낙찰되어 운영업무를 맡았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두 번째도 '민관경쟁입찰'로 수행함.

2.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사무국 방문

가. 방문개요

- ☐ 회의 주제 :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제도와 운영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심층면담
-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3일(목) 10:00~11:30,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사무국
- ☐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총 7명
 - 방문자: 이정권 팀장, 나정현 전문연구원(이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이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 최세경 통역담당(와세다대학대학원)
 - 면담자: Tachi Itsushi 실장 겸 사무국장(심의관), Onishi Yusuke 담당자 (이상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추진실 관민경쟁입찰등 감리위원회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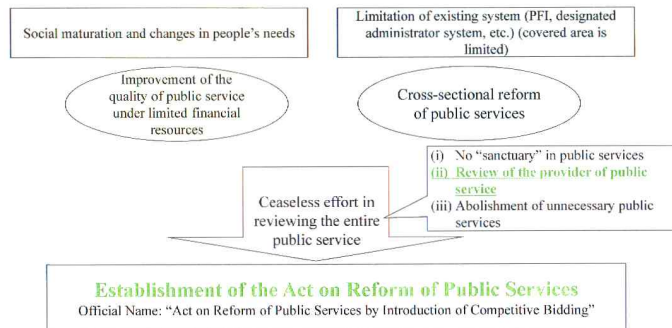
나.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도입 배경
 - 일본에서는 小泉(Koizumi) 정권에서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면서 영국의 Market-Test를 참조하여, 기존에 官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官이 아니어도 民(NPO 등)이 주체가 되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음.
 - 물론 민간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 결국 민간경쟁입찰 사례가 많아짐.
- ☐ 「공공서비스 개혁법」 상 '특정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
 - 예: 사회보험청의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업무, 호적법의 호적등본 교부업무
 - 특히, 형사시설의 운영업무는 성공사례로 들 수 있음.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시설(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영국의 갱생시설도 모범사례 조사로 방문함. 형사시설의 공무원 정원수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형사시설 운영업무를 맡을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본 사례는 오히려 정부기관(공무원)이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에 적극적이었음.
 - 또한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PFI로 진행 중이며 운영업무는 민간에 위탁함.

[그림 1] 공공서비스 개혁법 성립 배경(1)

I. Backgroun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Reform of Public Services (1)

- The Act on Reform of Public Services came into effect in July 2006.
- It is important that public services are individually catego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tibility with the point of each institute's existence, as well as the perspectives of efficiency, and room for exerting the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before taking necessary mea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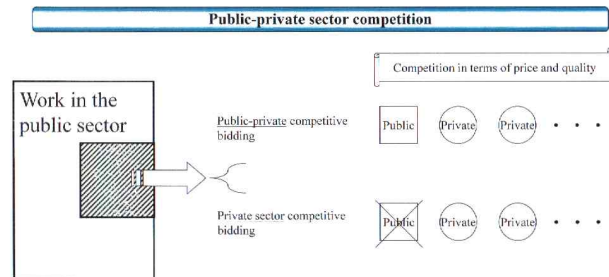


1

[그림 2] 공공서비스 개혁법 성립 배경(2)

I.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Reform of Public Services (2)

- "Public-private sector competition" is the collective term including both competitive bidding amo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private sector. It is also known as "market testing."
- In order to review the provider of public service,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s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to change the work flow in the public sector and ways of public services being provided.



Public-private competitive bidding: The public sector participates in competitive bidding,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pete against each other.
Private sector competitive: The public sector does not participate in the bidding (lose by default); the competition takes place only among private business oper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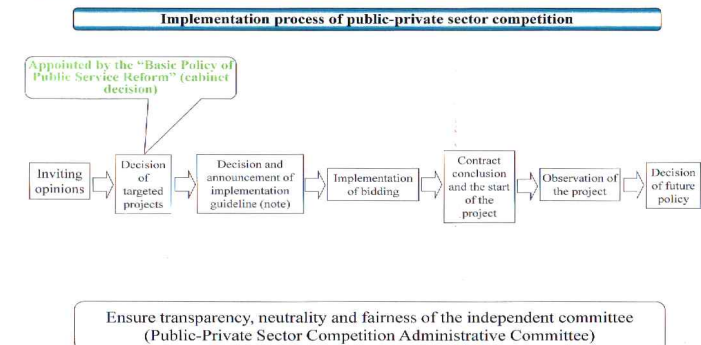
2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대상 범위

-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대상이 되나, 연관되는 타 법률로 인해 대상이 제한되기도 함.
- '특정 공공서비스'에 관해서는 정부(공무원) 밖에 하지 못하던 업무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제3자가 확인 및 검토함으로써 위탁업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은 당초 자민당(총리 小泉(Koizumi)) 정권의 상징적인 제도였으나, 현 정권은 노조 기반인 민주당으로 본 제도에 반대적임. 따라서 본 제도에서 '낙하산 인사 방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사항만 선택하여 도입하게 됨.
- 또한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대상사업의 의견모집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도서관 사업의 경우,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맞는 도서관을 선정함.
- 다만,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특정 지정자 관리 제도'로 위탁함.
-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사업도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대상이 되는지, 또한 요금결정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대상이 되는지?
-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PFI에 해당함. 또한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에서는 요금결정 등 경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됨.

[그림 3] 민간경쟁입찰 등의 실시 프로세스

IV. The Entire Flow of Public-Private Sector Competition



(Note) Implementation guideline is an explanatory document on offering information related to bidding.

18

□ 일본의 민영화 사례

- 3대 공사가 다음과 같이 민영화됨. 철도 'JR', 통신사 'NTT', 담배 'JT'.
 - 공사 시절에는 노동조합이 강하여 경영개선이 어려웠으나 민영화된 후에는 innovation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모두 성공 사례로 평가됨.
- 전력의 경우, 이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민영화되었으나, 평가가 엇갈림.
 - 송전과 발전의 일체화로 지역지사를 두어 독점체제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이룸. 그러나 요금체계에 있어서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못하여 평가가 좋지 않음.
 -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 정책과도 연관되어 오히려 다시 국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가령, 송전과 발전을 분리화 하여 송전은 독점으로 유지하되, 발전은 자유로운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다.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에 따른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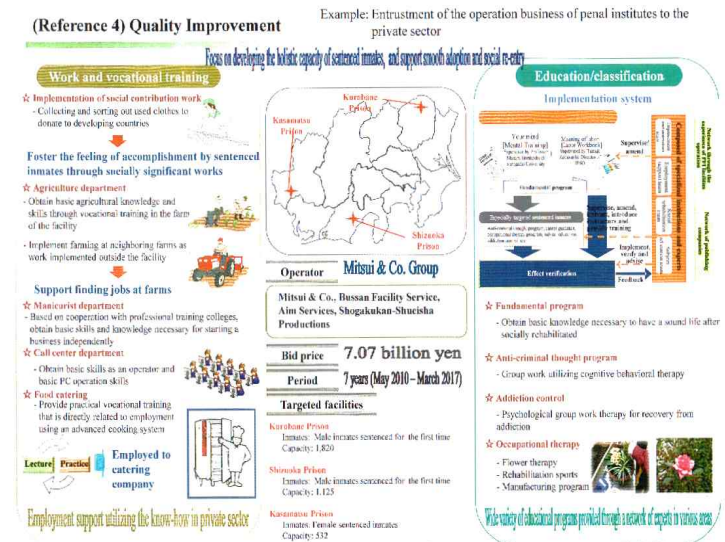
□ 신규시설의 경쟁입찰 적용 관련

- 신규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겨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신규시설의 관리 · 운영권까지 넘기려고 한다면, PFI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민과 官의 중간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특례를 제정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지?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은 '공공서비스'에 국한된 제도이며 경영권까지 고려할 경우는 별도의 법 또는 제도가 필요할 것임.
 - 특히 법 · 제도를 제정할 경우, 고용환경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에 따른 효과 및 영향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대상사업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도 굳이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실시요항이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함.
- 민간경쟁입찰의 경우 官의 업무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옹호자체가 적어, 민간경쟁입찰 사례가 많아짐.
- 기존에 '공익법인'에 위탁하던 업무가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의 주된 대상사업으로, 행정조직 자체에서는 이미 위탁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으나, 공익법인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그림 4] 사례: 형사시설 운영업무의 민간위탁



□ 앞으로의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추진 방향

-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태로, 자민당에서는 공약으로 지방정부에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을 적용하려고 함.

3.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방문

가. 방문개요

- ☐ 회의 주제 :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 관련 면담
-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3일(목) 14:00~15:00,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 ☐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총 8명
 - 방문자: 이정권 팀장, 나정현 전문연구원(이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이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 최세경 통역담당(와세다대학대학원)
 - 면담자: Kutsukake Toshio 기획전문관, Nagao Shinichiro 과장보좌 (이상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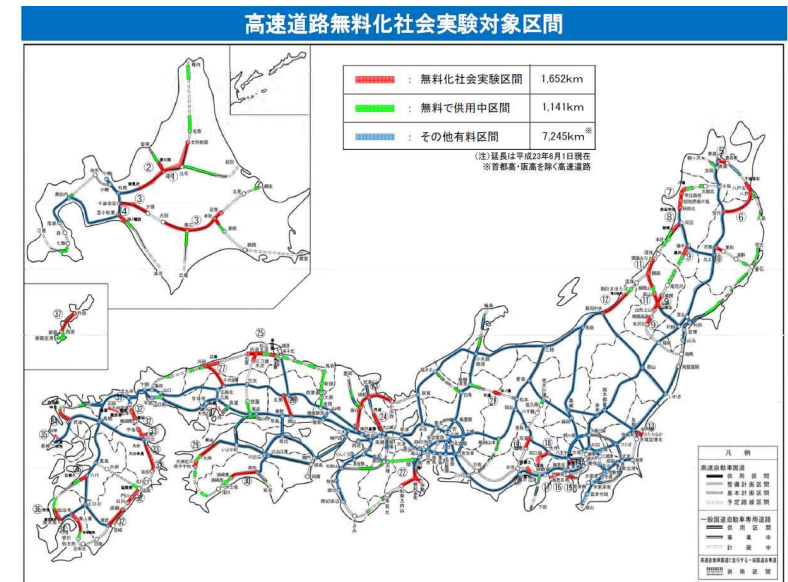
나.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

- ☐ 고속도로 운영·관리 주체
 - 주요 간선도로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6개 사가 관라함. 단, 국가가 정비·관리하는 도로는 무료임.
 - 6개 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공공기관(半민영화)이며, 독립행정법인인 '고속도로기구'가 별도로 설치됨.
 - 즉, 민간 6개 사는 고속도로의 건설·관리·요금징수를 수행하고, 고속도로기구는 고속도로의 자산권을 지니며, 고속도로에 대한 사용권을 민간 6개 사에 부여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음.
 - 2005년 이전에는 한국처럼 고속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하나의 기관이 수행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관리에 관해서는 민영화함.
- ☐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 개요
 - 고속도로무료화는 3년전 민주당이 내건 정책으로 사회실험을 수행하게 됨.

〈표 4〉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 개요

구 분	내 용
취 지	전국의 고속도로 중 약 20% 구간에서 무료화 사회실험을 수행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효과, 경제나 환경에 있어서의 영향에 대해 파악함.
실험 내용	실험기간
	2010년 6월 28일(월) 오전 0:00 ~ 2011년 6월 20일(월) 오전 0:00 한시적 동결
	대상구간
	1,652km (전국 고속도로 중 약 20% 구간)
대상차량	전 차종(현금 이용자 포함)
	예산
	2010년도 1,000억엔, 2011년도 200억엔 (사업기간 1년간 총 1,200억엔, 즉 수입원 감소)

[그림 5]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 대상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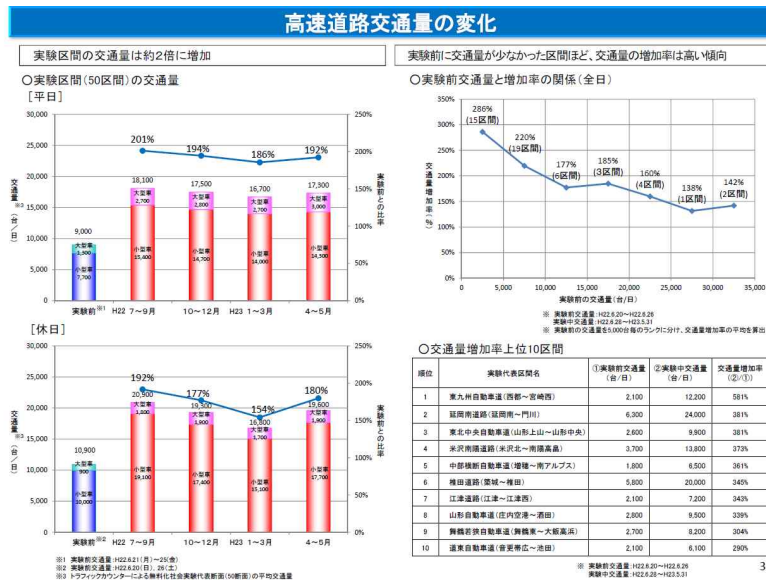


□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의 효과・영향검증 결과

○ 고속도로교통량의 변화

- 실험 중 교통량은 약 2배 증가함. 단, 한시적으로 동결한 후에는 실험 전의 수준으로 돌아옴.
- 실험 전에는 교통량이 적었던 구간일수록, 실험 중의 교통량 증가율은 높은 경향이었음.

[그림 6] 고속도로교통량의 변화



○ 고속도로의 정체상황 변화

- 실험 중의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구간에서 심한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음. 한시적으로 동결한 후에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체는 발생하지 않음.
- 실험 중 정체의 주요 요인은 실험 구간과 일반도로와의 합류부분이 약 반수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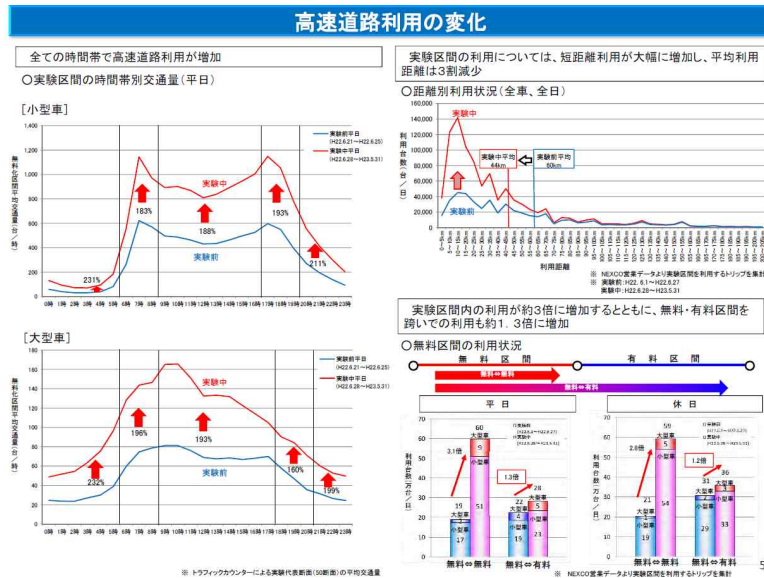
[그림 7] 고속도로의 정체상황 변화



○ 고속도로 이용의 변화

- 실험 중 모든 시간대에서 고속도로 이용이 증가함.
- 실험 중의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서는 단거리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평균이용거리는 30% 감소함.
- 실험 중에는 실험구간 내의 이용이 약 3배 증가함과 동시에 무료·유료구간에 걸쳐서의 이용도 약 1.3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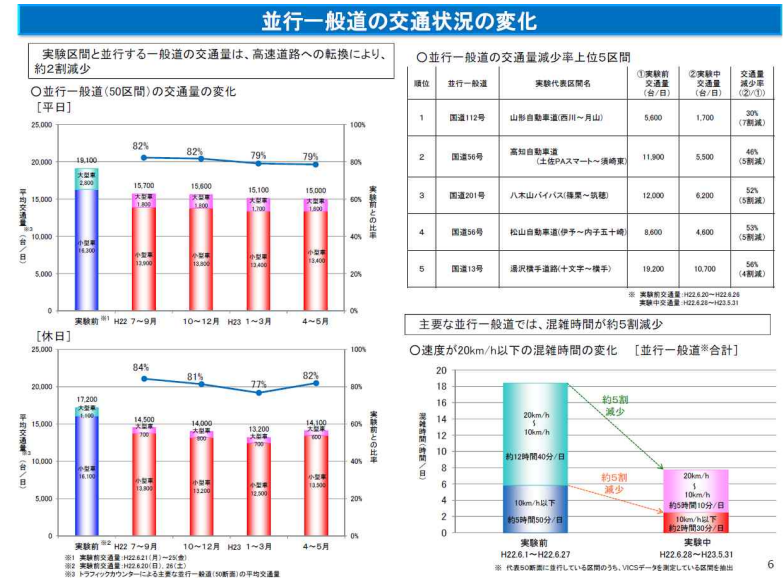
[그림 8] 고속도로 이용의 변화



○ 평행하는 일반도로의 교통상황의 변화

- 실험구간과 평행하는 일반도로의 실험 중 교통량은 고속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약 20% 감소함. 단, 한시적으로 동결한 후에는 실험 전의 수준으로 돌아옴.
- 평행하는 주요 일반도로에서는 실험 중에 혼잡시간이 약 60% 감소함. 단, 실험직후에는 혼잡시간이 한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후 실험 전의 수준으로 돌아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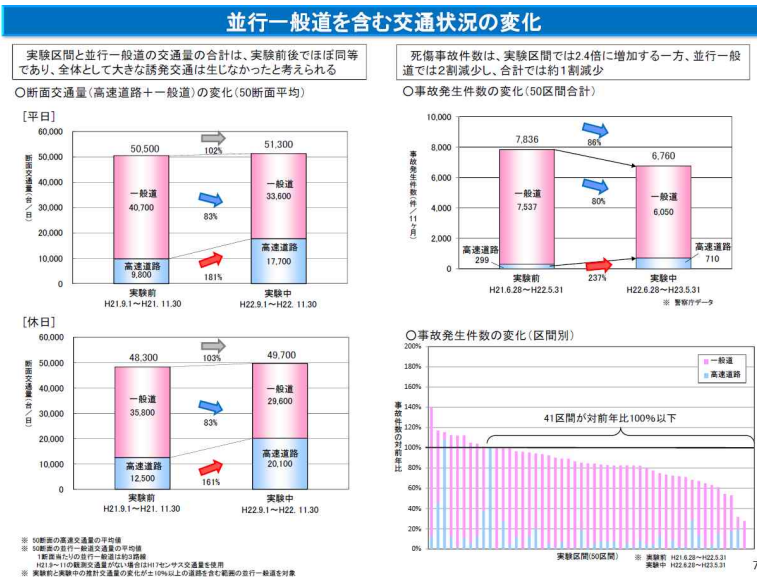
[그림 9] 평행하는 일반도로의 교통상황의 변화



○ 平행하는 일반도로를 포함하는 교통상황의 변화

- 실험구간과 평행하는 일반도로의 교통량 합계는 실험 전과 실험 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전체적으로 큰 유발교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실험 중의 교통사고 건수는 실험구간에서는 약 2.3배 증가하는 한편, 평행하는 일반도로에서는 약 20% 감소하여, 합계로는 약 10% 감소함.

[그림 10] 평행하는 일반도로를 포함하는 교통상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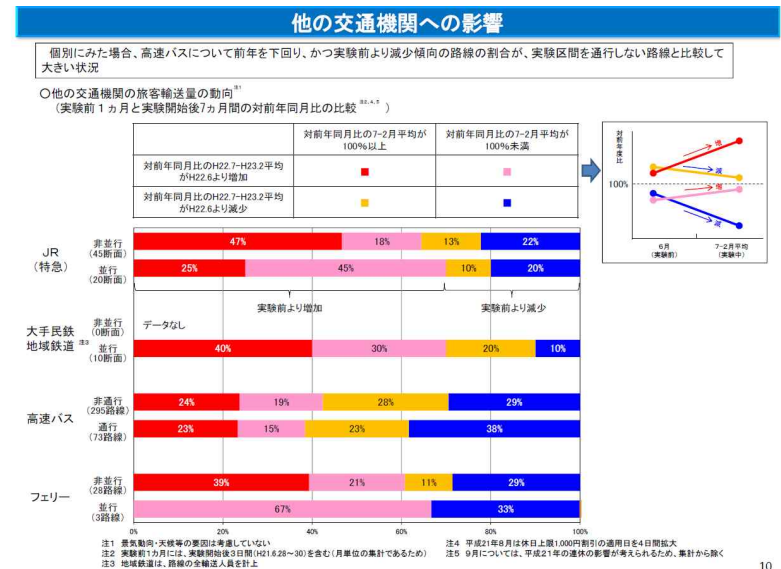
○ 관광에 끼친 영향

- 무료화 구간 IC 부근(10km 권내)이나 사회실험에 맞춘 지역의 프로모션 등을 실시한 시설에서는 실험 중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평행하는 일반도로에서는 시설의 이용객이 감소하는 사례도 있었음.

○ 타 교통기관에 끼친 영향

- 타 교통기관의 여객수송량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실험 전과 실험 중에 있어 큰 변동은 없었음.
- 고속버스의 경우, 실험 전과 실험 중을 비교하여 감소 경향에 있는 노선의 비중이 실험구간을 통행하는 노선에서 컸음.

[그림 11] 타 교통기관에 끼친 영향



○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의 평가

- 국토교통성 내에서의 평가와 함께 작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활성화 효과가 있었으나, 정체가 발생하기도 하여 양·음의 효과가 모두 있었음. 결국 고속도로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함.
- 동북대지진의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로 고속도로무료화 사회실험은 현재 중단된 상태임.

4.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관민연계정책과 방문

가. 방문개요

- ☐ 회의 주제 : 국토교통성에서의 민간경쟁입찰 사례 조사(1)
-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3일(목) 15:00~16:00,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관민연계정책과
- ☐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총 9명
 - 방문자: 이정권 팀장, 나정현 전문연구원(이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이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 최세경 통역담당(와세다대학대학원)
 - 면담자: Kutsukake Toshio 기획전문관, Nagao Shinichiro 과장보좌 (이상 국토교통성 도로국 고속도로과)

나. 국토교통성의 민간경쟁입찰

- ☐ 민간경쟁입찰 사례
 - 국토교통성의 민간경쟁입찰 사례는 총 55건(전 부처의 총건수는 250건)으로 모두 공공서비스의 민간경쟁입찰 사업임.
 - 야기된 문제점
 - 원래 官이 했던 업무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민간업체가 업무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민간경쟁입찰은 결국 가격경쟁으로 귀착됨.
 - 직원의 정원 및 고용 문제
 -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공영기업'에 일부 업무(공공서비스)를 위탁하고 있었음.
 - 1980년대 공영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정부차원에서도 행정개혁을 통해 고용삭감이 이루어져 업무에 비해 직원수가 부족해져 외부위탁을 하게 됨.
 - 도로·하천 등의 관리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처음에는 귀직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위탁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업체도 knowhow가 축적되어 위탁할 수 있게 됨.
 - 국토교통성에서의 민간경쟁입찰 의미는 위탁사업 입찰의 경쟁화이며, 외부로

부터의 모니터링 기능도 있어, 이러한 점에서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은 유용한 제도임.

☐ 국토교통성의 민간경쟁입찰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55개 사업 대부분은 국토교통성이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과 협상하면서 위탁 업무의 범위를 결정함.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 제도에서는 중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는 어려움.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은 '규제완화'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중 단순업무 위주로 사업이 선정되며, 새로운 발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PPP'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관경쟁입찰'이 아닌 '민간경쟁입찰'로 수행하는 이유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전부터 일부 업무(공공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수의계약 개념이었으나,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을 도입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에 의한 공무원 인원 삭감 영향은?
 - 공공서비스 경쟁입찰과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공무원 인원이 삭감됨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 중 단순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게 됨.

☐ 한국의 PPP 관련

- 일본에서는 최근 PFI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을 선진사례로 삼고 있음.
 - 한국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대한 설명

5. 국토교통성 官廳營繕部 방문

가. 방문개요

- ☐ 회의 주제 : 국토교통성에서의 민간경쟁입찰 사례 조사(2)
-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3일(목) 16:00~16:30,
국토교통성 官廳營繕部
- ☐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총 7명
 - 방문자: 이정권 팀장, 나정현 전문연구원(이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김용호 과장, 강미자 사무관(이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
최세경 통역담당(와세다대학대학원)
 - 면담자: Machida Hirohiko 장관관방 심의관(국토교통성 官廳營繕部)

나. 주요회의내용

- ☐ 한국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향
 - 현재로서는 공공서비스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수행 중임.
 - 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는 상태임.
- ☐ 기타사항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설명